

2008년 12월 22일 (월) 13:44 [연합뉴스 보도자료](#)

대전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확대

예술단체·전문 예술인·젊은 예술가 포함 6억 7천만원 지원

대전광역시는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향을 사업목적별로 세분화 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모방법을 변경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장르별 단순배분방식의 공모방법을 전문예술지원사업, 생활속 예술지원사업, 신진예술단체(젊은예술가) 지원사업, 문화예술 조사연구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실시해 오던 예술장르별 단순 분류방식의 공모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예술단체의 통합공모에 따른 지원금의 소액다건 하향평준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예술지원사업과 동호회 성격의 생활속의 예술지원사업을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문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예술인들이 구성원의 60%가 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대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는 우선 음악, 연극, 무용분야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다른 장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단위 공모전이나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35세 이하 젊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도 예술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정받는 전문예술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예술단체로 인해 신규지원이 어려웠던 신진예술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단체 설립이후 1년 이상 왕성한 활동을 해 온 경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 상한금액도 종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조정하고, 「1단체 1사업 신청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체에서 여러 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8개로 구분했던 예술장르는 전시회 성격의 미술, 서예, 사진을 「시각예술」로 묶고, 비상업적 대중예술과 복합장르 예술을 「다원예술」로 신설하여 7개 장르로 조정하였다.

셋째, 지역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문화예술관련 조사연구, 비평집 발간, 토론회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공모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게 되는데 시청 문화예술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사업선정 심사과정에 반영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초까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금요일) 오후 3시 시청3층 대강당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또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끝)

출처 : [대전광역시청](#)